논어 6편 옹야 25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君子博學於文，約之以禮，亦可以弗畔矣夫！」

독음 · 자왈 군자박학어문 약지이례 역가이불반의부

쉬운 풀이(요약) · 널리 배우고 예로 자신을 절제하면 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君 임금 군 / 博 넓을 박 박

學 배울 학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文 무늬 문 문 / 約 대략 약 약

之 갈 지 / 以 써 이 이 / 禮 예도 례 례 / 亦 또 역

可 옳을 가 가 / 弗 아닐 불 불 / 畔 지경 반 반 / 矣 어조사 의

夫 지아비 부 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